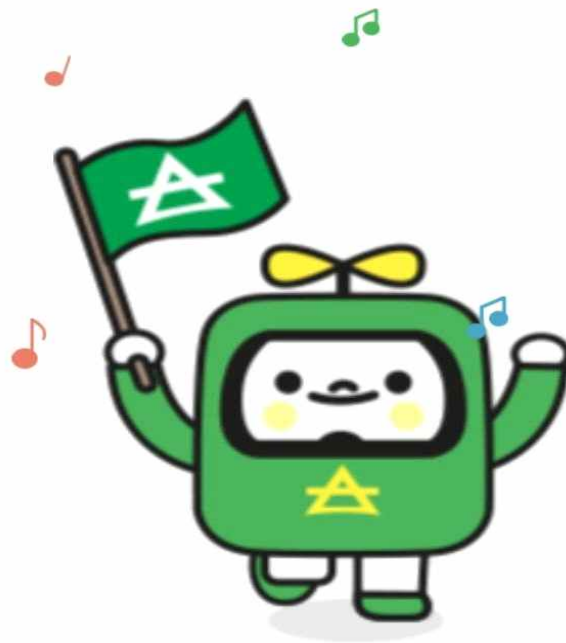


제28기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보고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내 인생이 달라졌다!



프로그램명	제28기 해외역사문화탐방 결과보고서
일정 및 인원	2025. 5. 21.(수) ~ 5. 24.(토) 3박 4일 재학생 24명, 교직원 1명, 임직원 1명, 총 인원 26명.

목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재학생들의 문화예술적 통찰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제28기 탐방은 중국 상하이 및 인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글로벌 안목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지의 우수한 역사 유적과 문화기관을 방문하여 학문적 지식을 심화하고 참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표	- 상하이 및 가흥, 항주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을 통한 현장 학습 - 중국 근현대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현지 문화 체험 및 비교 분석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향상 - 탐방 기간 동안 팀워크 강화 및 소통 능력 배양 - 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 및 개인 역량 강화에 활용	
진행과정	일시	내용
	5. 21.(수) ~ 5. 24.(토)	- 1일차 (5/21, 수): 인천국제공항 출발 →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도착 → 만국공묘, 예원 및 옛거리, 동방명주탑, 역사박물관 방문 →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간의 교류 시간 → 상하이 그랜드 매디슨 호텔 숙박 - 2일차 (5/22, 목): 가흥 이동 → 매만가, 임정요원 거주지 탐방 → 항주 이동 → 남호 풍경구 관람, 송성가무쇼 관람 → 항주 마르코폴로 호텔 숙박 - 3일차 (5/23, 금): 항주 서호, 항주임시정부청사, 청하방 옛거리, 성황각 및 성황묘 방문 → 상하이 이동 →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 간의 마무리 교류 시간 → 황포강 유람선 및 야간 외탄 투어 → 상하이 그랜드 매디슨 호텔 숙박 - 4일차 (5/24, 토): 노신공원, 상해임시정부청사, 신천지 방문 → 푸둥 국제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각자 자유롭게 귀가
평가	평가목록	평가
	준비평가	해외역사문화탐방 전 5월 10일(토) 본교 B동 205호에서 사전 OT를 갖었다. 프로그램 및 참여자 소개, 2인 1실 방배정으로 막대 뽑기하여 짝꿍 배정이 있었다. 서약서 작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 진행 되었으며, 여권 사전 제출과 자료 배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이 방문지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성에 관한 설명과 탐방 일정 안내가 명확하여 현지에서의 학습 효과를 높였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현지 언어 및 문화 차이에 대한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준비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되어 탐방의 성공적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정평가	탐방 일정은 계획대로 충실히 진행되었으며, 각 방문지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구성되었다. 특히, 상하이의 동방명주탑과 역사박물관, 항주의 임시정부청사 방문은 중국 근현대사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지 가이드와의 소통, 팀원들간의 협력도 원활하여 학습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다만, 이동 시간이 다소 길어 피로감을 느낀 참가자도 있었고, 일부 장소에서는 좀 더 머무르고 싶었던 명소들로 이동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뜻깊은 탐방이었다.
	총괄평가	이번 제28기 해외역사문화탐방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이 중국 상하이 및 인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탐방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과 지식은 학업뿐 아니라 개인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여러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의 협력과 소통 능력도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느낀 점	2025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동안 중국 상해에서 만난 역사와 문화는 저의 삶의 인생 노정 가운데 매우 특별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제28기 해외역사문화탐방으로 중국 상해를 다녀온 후의 여운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게 파노

	라마처럼 펼쳐지곤 한다. 평소 책과 강의로만 접하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이번 해외역사문화탐방은 제 인생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다같이 모여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탑승 전 설렘 가득한 얼굴들로 단체사진을 찍으며 시작된 여정으로 상해의 고즈넉한 골목길과 웅장한 역사 유적지를 거닐 때마다 새로운 감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상해의 전통 가옥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공존하는 모습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역사문화탐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순한 관광이 아닌 그 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대를 상상하며 걸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교수님과 교직원과 여러 학과의 다양한 학우들과 나누는 토론과 대화는 저에게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나이를 불문하고 함께 한 24명의 학우들과의 소소한 웃음과 우정도 큰 선물이었다.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때로는 길을 헤매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쌓인 정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깊어졌다. 이번 해외역사문화탐방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에 새로운 시각과 힘을 불어 넣어준 가장 값진 경험과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계기와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우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 소중한 기억을 마음 한 켠에 간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힘을 얻었다. 상해에서의 3박 4일, 잊지 못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여러 학우들과 함께 한 사진들을 담아본다.
--	--

해
외
역
사
문
화
탐
방
사
진

